

제148호

발행일 : 서기 2020년 9월 3일
창간일 : 서기 1983년 8월 15일
구독신청 : (02) 2244-3717
(02) 2244-3710
FAX : (02) 2243-1073
E-mail : andongkimgu@naver.com

安東金氏 大宗會報

발행인 : 김석한
편집인 : 김상근
인쇄인 : 김원희
발행처 : 안동김씨대종회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우) 02435
홈페이지 : andongkimc.kr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 해 전화위복이 되게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동김씨 대종회장 김석한입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찜통더위를 지나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온 나라가 코로나19 전염병과 물난리의 재앙을 맞아 사투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고 모임을 갖지 못하니 대면한 날이 멀어져 얼굴 잊어버릴까 걱정스럽습니다. 대종회는 특별한 사항 없이 2020년도 3/4분기를 종료하였습니다. 파종회 소식을 보면 안렴사공파종회가 정기총회를 마치고 신임회장에 형남(亨南)안렴사공파수도권종회장님을 선임하였으며 숙원이던 『오은 600년사』 편찬의 마지막 정리단계인 것 같습니다. 곧 발간 될 것으로 사료되며 큰 기대를 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동김씨역사연구회에서는 심혈을 다해 일본에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 선조님의 귀한 유물을 한데 모은 『금석집첩(안동김씨편)』 간행을 서두르고 있고, 제학공파종회는 제학공파조(휘 익달)님과 상계 2위의 초혼묘 조성에 합의하여 장소를 선정하고 모든 설계공사를 완료하여 본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종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 드리며 안동김씨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선조님들의 세일사 날자가 머지않았습니다. 충렬공선조님 시향은 음력10월9일로 올해는 양력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배위 냉평국대부인 시향을 봄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올리지 못 하였음으로 금년에도 전과 동일하게 한달 오후에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참석인원의 조정이 불가피 하지 않을까 사료되며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은 철저한 안전수칙 지키기가 필수입니다. 철저히 마스크 착용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자제하기 등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함으로서 전염병 퇴치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른들이 더 위험하다고 하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방역에 적극 협조하시는 길만이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종친여러분

하루속히 전염병이 물러가고 편한 마음으로 조상님을 추모하는 향사를 올리고 종친 간 돈목의 장을 열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서기 2020년 9월 일

安東金氏 大宗會 會長 金錫漢

2020 庚子 先祖님 歲一祀 일자 및 場所

향사 선조님	일 자		장 소	비 고
	음 력	양 력		
忠烈公(諱 方慶)	10.09 庚午	11.23(월)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330 (음수재)	鳳會 - 054) 855-2688
冷平國大夫人 竹州朴氏	10.09 壬子	11.23(월)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660 (상락재)	奉會 - 054) 853-0541
文英公(諱 恂)	10.07 戊辰	11.21(토)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329-1 (경모재)	장회 - 010-4741-6969
密直司事公(諱 七祐)	양력11월첫일요일 - 11.01(일)		포천시 일동면 사직2리 산27	재혁 - 총무 010-9992-9248
開城尹公(諱 七霖)	양력10월둘째일요일 - 10.11(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293	이경 - 회장 010-5215-6752
掌令公(諱 玖) · 典書公(諱 成牧)	10月 初丁日 - 11.20(금)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496-1 (학당재)	흥식 - 회장 010-4351-5208
副使公(諱 天順)	음10.16 丁丑	11.30(화)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492	원호 - 회장 010-2743-1855
良間公(諱 承澤) · 上洛君(諱 昺) · 文溫公(諱 九容)	양력 10월 셋째 일요일	10.20(일)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557 (금수정)	윤만 - 회장 010-2299-6600
安靖公(諱 九德)	음력 10월 첫째 일요일	11.15(일)	여주군 가남면 삼승리	흥기 - 회장 010-4812-1763
都評議公(諱 九鼎)	양력 10월 셋째 일요일	10.20(일)	의성군 점곡면 만취당길 17 (만취당)	희윤 - 종손 010-3615-5446
文肅公(諱 永噉) · 上洛伯公(諱 纘) · 提學公(諱 益達)	10.06 丁卯	11.20(금)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가전1길 198-33 (영모재)	태현 - 회장 010-9417-2479
貞簡公(諱 永煦) · 嶺三司事公(諱 蕡) · 按廉使公(諱 士廉)	10.05 丙寅	11.19(목)	청주시 오창읍 모정리 167 (영모재)	형남 - 회장 010-5480-0135
翼元公(諱 士衡)	10.06 丁卯	11.20(금)	양평군 양서면 목왕1리 214-2 (낙포재)	재남 - 회장 010-4588-7272
掌令公(諱 莢) · 書雲觀正公(諱 綏)	10.15 壬戌	11.29(일)	의왕시 포일동 142-5 (광곡재)	덕영 - 회장 010-5351-2999
正儀公(諱 哲)	양력11월둘째토요일 - 11.15(일)		안동시 임동면 증평리 431	태석 - 회장 010-6515-3240

※최근 코로나19 감염 위기경보에 따라 정부에서는 마스크착용을 의무화 하고, 옥내외의 집단행사나 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충렬공 고비위 세일사**는 종인 여러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부대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봉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종인여러분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후 대종회 사무처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렴사공파 제 30차 정기총회 성료

- 일시 : 2020년 6월 29일(월요일)
- 장소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140
(현령공 종회 빌딩 3층)



2020년 6월 29일 현령공종회 빌딩에서 안동김씨 안렴사공파종회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부에서는 고문, 부회장, 이사 등 40

여 명이 참석하여 2019년 예산결산과 2020년 예산안은 원안대로 회장단과 이사진의 승인을 받아 의결 되었습니다.

제2부에서는 파종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16대 김선희 회장님의 임기가 만료되고 17대 회장에는 안렴사공 23대손 형남

(안원군) 전 수도권회장이 추대 되었고, 감사에는 좌랑공 재필 종인이 선출 되었습니다. 신임회장 취임 인사말씀에서 전임 선희회장님이 3년간 종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을 치하 하고 임기동안 파종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내년 (2021년 3월) 봄에 안렴사공 묘소를 사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부에서는 회의를 마치고 모정리 안렴사공 묘소에서 신임 회장님의 고유를 올렸습니다. 코로나 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영공종회 재영회장님, 제학공종회 태현회장님, 문영공종회 태철총무이사님 등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종인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중식은 신임회장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날 화분과 화환을 보내주신 대중회장 김석한, 문영공종회장 김재영(화분), 제학공파종회장 김태현, 익원공파 종회장 김재남, 괴산종친회장 김태관, 수도권종회장 김태성님 등 종회와 종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무국장 현수 <사진촬영 사진작가 김순영(도정공)>

형남(容南)회장 취임 고유문



유 세차 단기 4353년(庚子) 음력 5월 초9일 癸卯에 안렴사공파종회 회장 23대손 형남(亨南)은 새롭게 회장에 취임하면서 사모함이 더욱 지극하여

할아버님 묘전에 엄숙히 고하나이다.

이곳 도산(陶山) 자좌원(子坐原)은 할아버님의 유택으로 600여 성상이 흘러 감회가 새롭습니다. 삼가 생각해 보면 할아버님께서는 상락 충렬공의 어진 현손이시며, 일찍이 불원재(不諼齋) 신현(申賢)의 문인으로 목은(牧隱) 이색(李穡),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선생과 함께 직간(直諫)으로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고려말에 문하시랑 정당문학에 오르시고 안렴사로 나아가셨으나 마침내 고려 사직이 무너지고 이태조가 조선을 개국하는 시기에 누차 좌사간에 제수하며 출사를 권유했으나 끝

내 불응불취하시고 망국지신으로 불사이군의 절의를 온전히 하셨습니다.

망해버린 나라 고려를 저버리고 조선개국에 협조하느라 할아버님께서 누릴 수 있었던 높은 벼슬을 끝내 거절하시고, 개경 송도에서도 먼 길, 충청도 벽지 인적도 드문 오근촌 도산아래 은거하시며 당호를 오은(梧隱)이라 하고 두문신으로 옛 임금에 대한 붉은 충정을 증거하셨습니다.

일찍이 우암 송시열은 탄식하며 이르기를 “충병일월(忠炳日月) 절고산악(節高山岳) 일편도산(一片陶山) 만고수양(萬古首陽)”이라고 할아버님의 절의를 기렸습니다. 우리들은 그토록 훌륭하신 할아버님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에 더 없는 긍지와 자랑스러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이제 불초손 형남은 할아버님의 후손들로 조직된 안렴사공파종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할아버님께서 남기신 위업과 전임 회장님의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 전국의 후손들이 서로 소통하고 승조돈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경건히 고유하오니 명계에서 음덕으로 도와 주시옵서. 상향

정홍원 전국무총리 사촌마을 방문



2020년 6월 8일 오전 11시 42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홍원 전총리 내외분과 윤상직 전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일행이 의성군 점곡면 사촌마을 만취당을 방문했다.

이날 정 전총리 일행은 현재 단촌면에서 농부생활하고 있는 이동필

전농수축산부장관의 안내를 받으며 사촌마을을 방문했는데, 만취당 종가에서는 김희운 종손과 김창희 전성균관 부관장을 비롯한 마을 분들이 전 총리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만취당에 도착한 정홍원 전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서애 선생의 어머니이신 김소강(金小姜) 정경부인과 서애 류성룡 선생이 태어나 자란 이곳 사촌마을에 오게 되어 무척 기쁘다”면서 “그분의 활약으로 이순신 장군을 살려내었고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했으며 <징비록>을 쓰셔서 후세에 남기셨다. 이런 훌륭한 정신이 흐르는 의성 사촌마을에 참 잘 왔다”면서 인사를 전했다. 이날 사촌마을을 둘러본 정 전총리 일행은 단촌면 서실에도 들러 회원들을 격려하고 다음 약속 장소인 하회마을로 떠났다.

<글 / 여명 김정중 (都.植行)>

철원 출신 김응하 장군 일대기 복원 시급

철원군 선양사업회 · 청년유도회 화지리 포충사지 현장 점검
-“선양사업 · 문화재 지정을”-



철원 출신 김응하(1580~1619년) 장군의 충의를 기리는 포충사지가 지난해 일부 공개된 가운데 선양사업을 통해 그의 일대기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응하 장군은 명나라가 후금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에 원병을 요청한 1618년, 광해군의 명으로 출정했다가 이듬해 전사했다. 후에 인조를 옹립하고 정권을 잡은 서인들은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킨 김응하 장군의 충의를 기리기 위한 사당인 포충사를 지었다. 6·25전쟁으로 전소된 포충사는 이후 군부대가 자리 잡았고, 이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대성전 등이 건립됐다.

충무공 김응하장군 선양사업회와 철원향교 청년유도회, 철원군 관계자 등은 지난 5일 철원을 화지리 군부대 내에 위치한 포충사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이곳에서는 과거 포충사의 사당과 전각 등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춧돌과 기단 등이 영내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포충사지가 위치한 해당 군부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3년까지 이전이 예정됐고, 현재는 일부 병력과 건물이 남아 있는 상태다. 철원문화원의 박종민 향토사연구위원은 “포충사가 건재하던 당시의 건축 자재들을 수습하는 등 연구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이를 통해 철원의 명장인 김응하 장군의 선양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과거 포충사의 여러 건물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주춧돌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문화재 지정과 선양사업 등은 군부대 이전과 맞물려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김응하 장군 선양사업회와 철원향교 청년유도회, 철원군 관계자 등은 지난 5일 철원을 화지리에 있는 군(軍)부대 내 포충사 터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철원 김대호 기자 · 강원일보 6.8.기사 轉載〉

임란공신 추모대제 봉행



충남 보령시는 임진왜란 발발 428주년을 맞이해 6월 04일 성주면 성주리 호국사 경내에서 임란공신 추모대제를 봉행했다. 임란공신충의선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선양회와 후손 등 2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국가 위기 시, 피땀을 흘리며 나라와 백성을 지켜낸 선조들의 살신성인 유덕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추모했다.

안동김씨는 충무공 김시민(金時敏, 提) 충민공 김흠(金欽, 翼) 선조님이 배향되어 있다. 이날 충민공 직손이신 김재택(金在澤, 翼) 대종회 이사님 부부가 참석하여 선조님께 봉향 하였다. 헌관은 송덕규 · 김창호 · 안맹환님이 맡았다.

임란공신 추모대제는 지난 1995년부터 매년 임진왜란 발발 일에 맞춰 공신 및 의병 428위의 위패를 모셔놓고 성균관의 전통제례 의식으로 봉행해 오고 있다

석한 대종회장 제19회 자랑스런 성균 경영인상 수상



성균관대학교 CEO모임인 성균경영포럼(회장 장연철)은 7.23일(목) 오후6시 웨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제19회 자랑스런 성균경영인상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우천의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70여 분의 회원이 참석한 본 행사는 국민의례와 내빈 및 신입회원소개에 이어 장연철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동렬 총장의 축사와 윤용택 총동창회장의 격려사로 이어졌다.

신동렬총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최선봉에서 이끌고 계시는 성균경영포럼회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지금 힘든 고비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인의예지 교시를 근간으로 잘 극복하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날 학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동문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성균 경영인상은 김석한(대주학원 보인중고 이사장)과 이수철(주)지예치홀딩스 회장, 장일석(새금융사회연구소 이사장) 세분이 수상하였다.

애국지사 복암 김화식선생 건국훈장 애국장 유족품으로 돌아와...

25년간 후손이 밝혀지지 않아 보훈처에서 잠자고 있던 애국지사 복암 김화식선생의 훈장과 훈장증이 보령의 문화단체와 증손자 김우직(보명 金範植)의 각고의 노력으로 2020년 8월 15일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유족에게 돌아 왔다. 이 소식은 지역 언론인 《보령시장신문》과 《동양일보》에 보도 되었다.



사진출처 : 보령시장신문

김화식(金華植(在行), 1866~1943)선생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중일(仲一), 호는 복암(復菴)이다. 한참 독립운동을 벌일 때는 김우동(金友東)이란 가명을 쓰기도 하였다.

수안군사를 역임한 강은(康隱) 김칠양(金七陽)이 파조이며 안주목사(安州牧使)를 지낸 청백리(淸白吏) 두남(斗南)의 후손으로 5대조 낙해(樂海)는 무과에 올라 구성도호부사를 거쳐 겸사복장(兼司僕將)에 올랐으며, 고조부 철훈(喆勳)은 무과로 상주영장. 중화도호부사를 지냈고, 증조부는 재인(在仁)이고, 조부는 무과로 부령부사를 역임한 진국(鎭國)이며 아버지 한표(漢杓)는 무과로 선략장군이 되어 대대로 무인(武人) 가계를 이루었다. 어머니는 숙인(淑人) 전주이씨(全州李氏)이다.

김화식선생의 증조부(휘 在仁)가 원적지 파주(坡州)에서 충남 보령의 능성구씨(綾城具氏) 마을로 이주하여 보령에서 태어났으며, 학문은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사상적 연원이 된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와 의암(毅菴) 유인석(柳麟錫)에게 배우면서 화서학파의 동문이 되었다.

1895년 일제가 경복궁에 침입하여 국모를 시해하였다는 을미사변(乙未事變)의 변보(變報)를 전해 듣고 비분강개하다가 을미개혁(乙未改革)으로 단발령까지 강행되자 토역복수(討逆復讐)를 위해 1896년 스승인 제천(堤川)의 유인석 의진(義陣)에 가담하여 주로 의병장을 수행하는 참모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화식선생은 당시 보령지역에서 가장 먼저 의병 활동에 뛰어든 인물이며 1906년 민중식(閔宗植)의 홍주(洪州)의진(洪州義陣)에 윤석봉(尹錫鳳), 유호근(柳浩根) 등 보령유림이 가담한 것도 선생을 통한 류인석 의병진과의 소통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 후 국내에서의 항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주위 사람들이 유인석 의병장에게 국외로 망명하여 항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때 선생은 처음에는 국내에서의 항전을 포기하는 요동행(遼東行)을 적극 만류하였지만 상황이 어렵게 되자 하는 수 없이 사환·통사 5~6명과 함께 스승 유인석의 요동행을 수행하였다.

배위는 배천조씨(白川趙氏)와 계배(繼配) 분성김씨(盆城金氏)로 3남 1녀를 두었다. 1943년 음력 4월 2일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죽하 마을)에서 향년 78세로 별세하였다.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저서로 《복암집(復庵集)》《소의신편(昭義新編)》이 전하며, 《군사공파보(1912년, 壬子譜)》발간에 힘썼다. 묘소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에 있다.



《소의신편(昭義新編)》

『소의신편』은 복암(復庵) 김화식(金華植)에 의해 편집되었다. 김화식은 그의 스승인 유인석이 항일독립운동(1895년 을미의병)을 선도 할 때에 함께 거의한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문인들의 사상적 연원이 된 위정척사론(衛正斥邪論)에 관한 대표적 저술로서, 화서학파(華西學派) 인물들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그들의 항일구국의 활동기록이 결집되었다.



『소의신편』은 1899년(광무 3년) 의암(毅菴)이 을미의병의 패퇴에도 불구하고 그 문도를 거느리고 재기항쟁을 기도하여 서간도(西間島)에 망명중 그 문인 김화식이 스승 유인석 및 함께 거의한 동문들의 위정척사와 의병 관계의 글들을 편집하여 간행한 것으로 우리나라 근대사의 중요한 연구자료일 뿐만 아니라 근대 우리들의 민족의식을 이해할 귀중자료로 보고 있다.

그 후 3년만인 1902년(광무 6년) 같은 문인 백삼규(白三圭)·김형(金滢) 등에 의하여 보유편인 속집 2권1책이 마저 편집되어 서울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것인데, 원집 8권 4책과 속집 2권 1책 합 5책으로 되어 있다. 원래 1천 부를 간행하여 그중 50질을 중국에 보냈으나, 이 책 역시 일제에 의해 압수 소각되어 희귀본으로 존재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대중회사무부총장 김태영(金泰榮)〉

죽어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



안동김씨대종회 고문
동천 김창희

몽고제국의 건설자 징기스칸(成吉思汗)이 단결의 교훈을 후세에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다. 탐욕스러운 정복전쟁을 통해 전대미문의 대제국을 건설한 그가 임종할 무렵다섯 아들을 불렀다. 그는 아들에게 화살 하나씩을 나누어 주고 분지르도록 지시했는데 모두들 그일을 쉽게 해냈다. 그 다음은 다섯화살을 한다발로 묶어서 꺾도록 했다. 아무도 그것을 꺾지 못했다. 가는 화살이지만 다발로 묶이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가르침으로 합심단결을 당부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그 아들들은 실제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 드리지 못했다. 그뿐아니라 징기스칸 자신도 조직의 단결을 해치는 정책으로 후세에 여한을 남겼다. 그는 부하의 두 장군에게 같은 임무를 주어 서로 경합하는 용병술(用兵術)을 즐겨 썼다. 두 장군의 경쟁은 치열해서 성공률도 높았다. 그러나 그 때문에 부하들 사이에 상호질시(相互嫉視)와 반감과 숙원이 쌓였다. 징기스칸 사후의 분열과 경쟁극은 거기서 초래된 것이다. 더 나쁜 용병술도 있다.

이탈리아 전선의 나폴레옹은 크게 선전해서 그 명성이 프랑스에 떨쳤다. 이를 질시한 혁명정부가 켈러만장군을 파견하여 이탈리아 방면의 군사령관을 2인제로 만들려 했다. 그때 나폴레옹은 두 사람의 양장(良將)보다 한 사람의 우장(愚將)이 지휘하는 편이 낫다는 명언을 남겼다고 한다. 조직의 본질은 바로 나폴레옹의 말 그대로이다. 조직은 쌍두마차(雙頭馬車)가 이끌어 갈 수 없다. 다만 두 마리의 말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권력투쟁이 있기 때문이다. 그건 오히려 조직 내부의 활력이 넘친다는 증거가 되고 발전의 가능성도 된다. 하지만 장차 한판의 결전을 앞에 두고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킬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가(政界)에서 일어나는 정당 운영의 내분도 이와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할 수 있다. 지향하는 길이 서로 다르면 같이 일할 수 없다. 그것이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신 도부동불상위모(道不同不相爲謀)이다. 당초에 뜻을 같이 했다면 끝까지 같이 가야하는데 서로간의 이익에 휘둘려 대의를 버리고 다툼을 버린다면 이는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척사위정(斥邪衛正)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정의를 지키고 사기를 배척한다는 말이다. 구한말 서교(西敎)의 전파와 때를 같이하여 열강의 침략이 빈번해지자 뜻있는 유생(儒生)들은 유교적 전통을 내세워 외세를 배척하고 양이(攘夷)를 강력히 주장하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을 몸소 실천했던 면암 최익현(崔益鉉)의 순국비가 대마도에 우뚝히 서있다. 그는 왜인들이 주는 음식물이라 하여 물한모금 조차도 마시지 않고 대마도 유배지에서 굶어서 순국한지 올해가 1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것은 의불식주속(義不食周粟)의 백이숙제(伯夷叔齊)의 고결한 정신을 흠모해서 일 것이다. 1868년 경복궁중건에 따른 대원군의 실정을 탄핵하면서부터 시작한 최익현의 비판 정신은 유배지에서 구술해 올렸던 유소에 이르기까지 실로 경세의 목탁(警世木鐸)이었다. 1904년 노일(露日)전쟁을 계기로 일본 침략의도가 노골화 하자 외국에 대한 의부심 금지 등의 상소를 올린 것은 일제에 크게 저항하는 뚜렷한 논리였다고 한다. 이들의 주류는 경기도 양근 출신으로 우국대의를 주장한 학자 화서 이항로(李恒老), 전북 순창출신의 강직한 성리학자 노사 기정진(奇正鎭), 이항로의 학통을 이은 학자로서 갑오경장과 김홍집(金弘集)의 친일 내각을 반대하여 의병을 일으킨 의암 유인석(柳麟錫)

등으로 대표되는 위정척사학파는 나라의 주권이 크게 흔들리던 조선왕조 말엽 이땅의 보수주의 세력을 대표하던 지식인들이었다. 존중화양이적(尊中華攘夷狄)으로 요약되는 이 사상은 단순한 이념(理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처 봉기의 의병활동으로 승화되었던 실천이념이기도 하다. 외세 침투의 폐단은 정치적 종속, 경제적 착취, 도덕적 타락으로 보았던 기정진의 척사소(斥邪疏)는 백여년이 지난 오늘도 설득력이 있다고 말할 한다. 1세기 전에 이와 같은 사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도 되돌아 볼일이다.

살신성인(殺身成仁)이란 말이 있다. 남의 고통을 측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인(仁)이라 하고,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義)라고 말하였다. 하나의 촛불이 자신을 태움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살다간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그 참뜻은 필생즉사(必生則死)하고 필사즉생(必死則生)이다. 반드시 살고자하면 죽고, 반드시 죽고자하면 산다는 깊은 철학이 담겨져 있는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애국지사들이 살신성인으로서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초개같이 던졌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알려진 위인들로서 임진왜란 당시 구국의 영웅 이순신(李舜臣)장군과 구한말에 일제의 침략을 받을 때 충절의 표상 충정공 민영환(閔泳煥) 등이다. 위인 두분은 평소부터 살신성인을 실천한 분들로서 그 신조를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들의 유훈에서 밝혀져 있다. 죽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비록 몸은 죽어도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 민족사와 더불어 천추(千秋)에 전해짐을 말한다.

여기 한평생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살다가 자신이 기거하던 경교장(京橋莊)에서 육군소위 안두희의 흉탄에 암살당하고 국민장으로 효창공원에 묻힌 백범 김구선생을 조상하는 중국 장개석(蔣介石)총통의 만사(輓詞)를 옮겨 적는다. 이들 모두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다.

樞星一夜落江山 큰 별이 하룻밤에 강산에 떨어지니
天動地悲水自鳴 하늘도 땅도 슬퍼하고 물도 절로 우네
別淚潸潸滄海濶 이별의 눈물은 창해에 넘치고
憤心疊疊泰山輕 분한 마음 첩첩이 쌓여 태산도 가벼우리
堂堂義氣生前事 당당한 그 의기는 생전의 일이었고
烈烈精神死後名 열렬한 그 정신은 사후에 이름일세
千秋冤恨憑誰問 천추의 원한을 누구에게 물어볼까
寂寞皇陵白日明 적막한 저 무덤에 밝은 햇살 비추네.

(주)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옥/사찰/제실

보수단청업 01-16-0042호

대표이사 김진식

(충렬공 27세손, 익원공파)

문화재기능자 대목수 제 4459호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장승진흥회 이사

경북 영주시 하망동 325-19(3F)

TEL. (054)636-1239

C.P. 010-3507-1239

E-mail: ddundol@hanmail.net

안동김씨역사연구회 단합 걷기대회 후기

2020년 6월 26일(금)은 백범(白凡) 김구(金九)선생 서거 71주기입니다. 안사연에서는 이를 계기로 그동안 코로나 19로 움츠렸던 마음도 추스릴 겸 백범 동상 참배 및 남산 일원을 트래킹하는 단합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020. 6.14.(일) 10:00시
- 집결 : 서울역 6번 출구 밖
- 코스 : 현봉학 박사 상-3.1운동(세브란스) 표석-남지(김성동 선조님 집터)-송례문(도편수 최유경 완공)-남산공원 입구-김유신 상-성재 이시영 상-백범 김구 상-다산 정약용 상-퇴계 이황 상-두텁바위-소월시비<산유화>-도마 안중근(동상, 기념관, 어록비)-구어런이회관-위안부 기림비-남산도식후경-조지훈 시비<파초우>-와룡묘-구중앙정보부청사-남산골공원-목멱산 충정사-예술통-윤가네 의정부부대찌개(점심) 총 5.5km, 쉬엄쉬엄 걷기 3시간 30분 소요.
- 회비 : 없음(식비는 군사공과 준회 회장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참가 : 광문, 영환, 우회, 윤만, 재영, 준회(2), 태신, 태영, 현회 10명

이날 답사 코스를 아래와 같이 간추려 보았습니다.

【남지(南池)】



남지(南池)는 송례문 남쪽에 있던 큰 연못으로 연(蓮)으로 유명하였기 때문에 연지(蓮池)라고도 불렸습니다. 용재총화에는 “중추 김성동(金誠童)은 상락부원군[좌의정 김질(金礦)]의 아들이다. 집이 남대문 밖 남지 곁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보 제1호 송례문(崇禮門)】

송례문(崇禮門)은 태조 7년(1398) 중추원사 평도공 최유경(崔有慶) 선생이 준공하였습니다. 최유경은 평장사 상락군 김묘[金昴, 척약재 김구용(金九容)의 부친] 선조님의 사위로 배위 안동김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판돈녕부사 양도공 최사의(崔士儀)와 함께 부자 청백리에 녹선되기도 한 분입니다. 송례문은 2008년 화재로 전소되었다가 5년간의 복원 작업 끝에 2013년 완공되었습니다. 이 때 양녕대군이 쓴 편액도 소실되었으나 다행히 상도동 양녕대군 종손가에 보관되어 있던 탁본으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과 보존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유신(金庾信)장군 상】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선생은 ‘네 군인 이야기’에서 “김방경(金方慶) 장군의 스토리를 읽다 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한민족이 자랑할 만한 네 명의 장군, 즉 김유신(金庾信)-김방경(金方慶)-이순신(李舜臣)-박정희(朴正熙)는 두 가지 운명으로 나뉜다. 김유신, 김방경처럼 국가를 지켰지만 외세를 끌어들이었다는 비판을 받는 쪽, 혹은 김유신, 박정희처럼 국가를 살리고도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쪽, 혹은 김유신, 박정희처럼 나라 경영에 성공한 쪽과 김방경, 이순신처럼 평생을 고생만 한 군인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한민족에게 영웅이 희귀한 이유인지 모르겠다.”

【백범 김구(金九)선생 동상】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富)는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

【백범 김구(金九)선생 관련 유적지】

번호	유 적 지	문화재	주 소	비 고
01	김구선생 수감터		인천 중구 내동 83-5 (한진아파트 앞)	감리서터
02	김구선생 수감처	사적 제324호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03	김구선생 은거지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 (마곡사)	백련암,백범당,향나무
04	김구선생 은거지		전남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226-3 (쇠실마을)	기념관,은거의 집
05	경교장	사적 제465호	서울 종로구 평동 108-1 (강북삼성병원)	
06	김구선생 휘호 암각문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78 (이산묘 맞은편 우측 암벽) “靑邱日月大韓乾坤 金九”	
07	백화마을		광주 동구 학동 1013 (학동공원)	기념관,동상
08	근현대사기념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산73-23	자료실,흉상
09	단골 해장국집	서울 미래유산	서울 종로구 종로1가동 24(피맛골)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1층 청진옥)	
10	김구선생 암각문	향토유적 제8호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89 (석굴암) “石窟庵, 戊子仲秋遊此 白凡 金九,佛”	
11	김구선생 묘	사적 제330호	서울 용산구 효창동 255	기념관,의열사
12	모친 곽낙원 묘		대전 유성구 갑동 산23-1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2묘역 771호(김인:772호)	김신:장군2묘역
13	백범 김구선생 동상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00-115 (남산 백범 광장)	
14	“		인천 남동구 장수동 180 (인천대공원 백범광장)	모친 곽낙원 동상
15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13 (백화마을 기념관)	
16	대각사(방문지)		서울 종로구 봉익동 2	
17	백범 어록 “나의 소원”		서울 성동구 청계8가 황학교-비우당교 사이(소망의 벽-남쪽벽 12번째 중앙)	
18	김구 방문고택 ‘대명헌’		인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326	
19	백범 참배 기념비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533-7 (문영공 김순(金恂) 묘역)	

제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K-팝, K-드라마, 영화, 게임, 패션, 화장품, 음식, 한글 등 문화콘텐츠가 한류 바람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백범 선생의 지향과 예리한 통찰력에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동상 좌대 우측에는 중화민국 총통 장제스(蔣中正)의 휘호가 있고, 좌측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 ‘위국성충은 일월같이 천추만대에 기리 빛나리. 백범 김구선생 동상 건립에 즈음하여 일천구백육십구년 필월 일’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丁若鏞)선생 동상】

다산 정약용[丁若庸, 영조 38년(1762)~헌종 2년(1836)], 나주인, 어머니가 고산 윤선도(孤山 尹善道)의 6세손, 공재 윤두서(尹斗緒)의 손녀입니다. 정조 13년(1789) 문과에 급제하여 좌부승지에 이르렀고, 흔히들 ‘실학의 집대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다산선생의 마재정씨 가문과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즉, 다산선생의 아버지 정재원(丁載遠)은 3명의 부인과의 사이에서 5남5녀를 두었습니다. 초배와의 사이에 큰아들 약현(若鉉)이 있고, 계배 해남윤씨와의 사이에 약전(若銓)·약중(若鍾)·약용(若庸)과 이승훈(李承薰)에게 시집간 누이가 있으며, 셋째부인에게서 1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약황, 딸은 채제공(蔡濟恭)의 서자인 채홍근(蔡弘謹)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1981년 한국 천주교 창립 선조 5인의 묘역이 조성되어있는 천진암의 이벽(李穡), 정약중(丁若鍾), 이승훈(李承薰), 권일신(權日身), 권철신(權哲身) 5분은 모두 다산과 친인척간으로 과갈(瓜葛)의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박팽년(朴彭年) 생가터】

박팽년[朴彭年, 태종 17년(1417)~세조 2년(1456)], 본관은 순천, 호

는 취금헌(醉琴軒), 시호는 충정(忠正), 할아버지는 목사 박안생(朴安生, 전의 입향조), 할머니는 학당 김휴(金休, 전서공파 전의 입향조)의 따님 안동김씨, 아버지는 이조판서 박중립(朴仲林), 어머니는 김익생(金益生)의 따님 김녕김씨입니다.

세종 16년(1434)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 1438년 삼각산 진관사에서 사가독서 하였고, 세종 19년(1447) 문과중시 을과로 다시 급제하여 집현전 학사가 되었으며, 단종 2년(1454) 형조참판 세조 2년(1456) 다시 형조참판이 되었습니다.

박팽년은 아들과 함께 처형되었는데 둘째 며느리 성주이씨가 대구 감영의 종이 되었는데 임신 중이었습니다. 마침 집에서 거느리고 있던 여종도 임신 중이었는데 며느리는 아들을 낳고 여종은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이면 처형이 될 것을 염려하여 아이를 서로 바꿔 기르다가 성종 대에 와서 둘째 아들[박순(朴詢)]의 동서 이극균(李克均)이 경상도관찰사로 오자 이 사실을 고하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성종 임금은 죄를 용서하고 이름을 박일산(朴壹珊)으로 하라고 하였고 천역(賤役)에서 면하고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육신 중 유일하게 후손이 전하여 오고 있습니다.《대동기문》



〈기사 : 김윤만 문온공파종회 회장, 안사연 총무〉

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4회 전국 통일문예작품 공모 심사결과 발표

일반부 대상 조두현씨 · 학생부 대상 윤영규 학생



충무공김시민장군 기념사업회는 4회 전국 통일문예작품 공모전에서 일반부는 조두현씨, 학생부는 윤영규군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충남 천안이 낳은 임진왜란 진주대첩의 영웅 충무공 김시민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청소년 문예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전국단위 문학행사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일반부 150편, 학생부 230편 등 총 380편이 전

국에서 응모했으며 심사 결과 41편이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결과 통일부장관상인 일반부 대상은 조두현씨(대전시)의 ‘영원하라 충무공 김시민’이, 교육부장관상인 학생부 대상에는 윤영규군(서울 보인고)의 ‘김시민, 과거부터 미래를 아우르는 본보기’가 차지했다. 일반부 최우수상은 고아라(천안)·김완수씨(전주)가 충남도지사상을, 학생부 최우수상에 최지성(천안성정중)·최예현(세종 소담중)

·박준우(보인중)·이재원 학생(보인중)이 충남교육감상을 받았다. 이밖에 우수상과 장려상에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상과 기념사업회 회장상이 수여되는 등 모두 41명이 입상했다.

심사를 맡은 이정우 충남문인협회장은 “충무공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사유의 유연성, 상상력의 정도를 심사 기준으로 했는데 독창적인 소재와 서사구조를 갖춘 작품들을 선정했다”며 “심사위원 모두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의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는 서정과 시심을 간직하는 문학도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본 대회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법혜 충무공김시민장군 기념사업회장은 “장군의 충절과 불굴의 호국정신 선양을 위해 마련된 문예작품 공모에 많은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과 학교단위 응모가 이뤄져 예년에 비해 접수가 늘어났고 또 작품 수준도 높아져 기쁘다”고 전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리는 김시민장군 탄신기념 문화제 행사와 병행해 열리게 된다.

— 천안·김병한기자 —

영호루의 충렬공 제영(題詠) 소고(小考)

안동의 영호루(映湖樓)는 울산 태화루(太和樓), 밀양 영남루(嶺南樓), 진주 축석루(矗石樓)와 함께 영남 4대루에 꼽히는 자랑스러운 누각으로 이 고장 사람은 물론이요, 안동을 찾는 많은 시인 묵객들이 누에 올라 주위 경관을 바라보며 시를 읊고 가무를 즐기던 유서 깊은 곳이다.



누대에는 우리 중시조이신 충렬공(金方慶)께서 지으신 제영(題詠) ‘복주(福州)’와 둘째 아드님 도침의공(金忻)께서 차운하신 ‘영호루(映湖樓)’ 시를 비롯하여 각종 현판 47개가 걸려있다.

특히 영호루의 역사는 우리 충렬공(휘 方慶)께서 1281년 윤8월 고려군 사령관으로 2차 일본정벌[辛巳再征]후 합포로 귀환하여 개경으로 돌아가던 중 고향 안동의 영호루에 올라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하며 “복주(福州)”라는 제영(題詠)을 남김으로서 창건 연대가 고려 중기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충렬공(忠烈公) 제영(題詠) - ‘복주(福州)’

山水無非舊眼青 산과 물은 예전 그대로 맑고
樓臺亦是少年情 누대 또한 어릴 때 정일러라
可憐故國遺風在 애뜻하여라 고향엔 옛 풍습 남아
收拾絃歌慰我行 풍악 울리며 나의 길을 위로하네.



○原題 - 福州 辛巳歲東征日本班師至福州

이 시(詩)는 1281년 윤8월에 우리 중시조이신 충렬공(휘 方慶, 1212~1300)께서 정동원수(征東元帥)로 두 번째 일본정벌[辛巳再征]후 안동에 귀환하여 지으신 7언 절구로 안동 영호루 벽에 시판(詩板)이 걸려 있다.

당시 충렬왕과 왕비 제국대장공주는 일본 원정에 참전했던 도원수 김방경을 비롯한 장졸들을 위로하기 위해 함께 안동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안동부사 김군(金頤)은 채붕(綵棚)을 설치하고 음악을 연주하며 큰 환영 행사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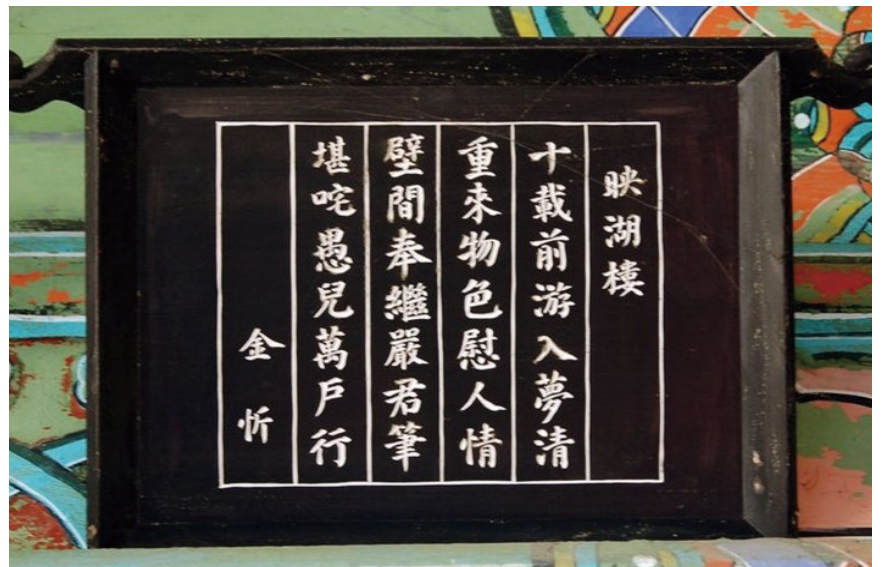
이 때 충렬공께서 환영 행사에 참석하신 후 영호루에 올라 어릴적 고향 정경을 떠올리며 제영(題詠)을 하셨다. 안동대학교 배영동 교수는 “충렬왕이 안동에 머문 것은 당시 고려군 도원수였던 충렬공 김방경이 안동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2. 충렬공 시에 차운(次韻)한 작품 들

충렬공께서 지으신 “복주(福州)” 시의 압운(押韻)은 위 시판에서 보듯 청(靑), 정(情), 행(行)자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첫 행의 끝 운자인 푸를 청(靑)자는 맑을 청(淸)자의 오류일 것이라는 설이 분분하다. 그 이유는 충렬공의 차남(次男) 김흔(金忻)과 고손자(高孫子)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 그리고 철성부원군 용헌(容軒) 이원(李原) 등이 영호루에 올라 충렬공 시에 차운(次韻)하여 모두 맑을 청(淸)자를 운자(韻字)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1) 영호루(映湖樓) - 김흔(金忻, 1251~1309)

十載前游入夢淸 10년 전 놀던 일 꿈에도 선명터니
重來物色慰人情 다시 오매 풍경이 내 맘을 위로하네.
壁間奉繼嚴君筆 벽에 걸린 아버지 글에 이어 쓰노니
堪詫愚兒萬戶行 어리석은 아들 만호 걸음 부끄럽네.



▲김흔의 시판으로 현재 영호루에 아버지 충렬공 시판과 나란이 걸려 있다.

이 시는 차남 김흔(金忻)이 1289년 39세에 우군만호(右軍萬戶)로 합단(哈丹)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용양행성으로 나갈 때, 안동 영호루에 올라서 벽에 걸린 아버지 충렬공의 시를 차운한 ‘영호루’이다.
※詩板에 셋째행 두 번째 間자는 <동문선>에는 閒자로 썼는데 俗字로 뜻은 같다.

2) 안동객사북루. 고조 상락공의 운을 따라

- 김구용(金九容, 1338~1384)

[安東客舍北樓.次高祖上洛公詩韻(안동객사북루 차고조상락공시운)]

先祖題詩字字淸 선조께서 지으신 시 글자마다 맑은데
重來此日更含情 오늘 다시 와서 보니 정감이 새로워라
江山似有留連色 강산은 옛 모습 그대로 어울려 있으니
仍占春風未肯行 봄바람에 기대서서 가기 싫을 뿐일세

척약재학음집(惕若齋學吟集) - 김구용(金九容)의 문집

이 시는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이 안동 영호루에 올라 고조

부 상락공(上洛公) 시의 운에 따라 지은 것이다. 1377년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이 안동에 있는 김약재(金若齋)에게 시를 지어 보냈다는 내용으로 보아 북원(北元)의 사절을 반대하며 우왕(禡王)과 갈등으로 죽주(竹州)에 유배되고, 여흥(驪興)에서 7년간 한거하던 시기인데, 이 때 영호루에 올라 지은 시로 추측해 볼 수 있다.

3) 영가 누각의 시에 차운하다(次永嘉樓詩)– 이원(李原, 1368~1429) 樓閣秋生枕簟清 누각에 가을 되니 대자리도 시원한데 登臨王粲不勝情 왕찬(王粲)처럼 오르니 고향 생각 못 이기네 倚閭慈母應相望 어머니는 동구에서 기다리실 것인데 有子那堪嶺外行 자식 되어 영남 순행 감당을 어찌하랴

용헌집(容軒集) – 이원(李原)의 문집 이 시는 이원(李原)이 1408년 경상관찰사로 부임하여 영남을 순행할 때 차운한 작품으로 보인다. 역자(고전번역원)는 김흔(金忻)의 처지를 왕찬(王粲)에 비유하여 차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왕찬은 후한(後漢) 말기의 문인으로 자가 중선(仲宣)인데, 동탁(董卓)이 난을 일으키자 형주(荊州)로 피난 가서 유표(劉表)에게 의지하고 있을 적에 강릉(江陵)의 성루에 올라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등루부(登樓賦)>를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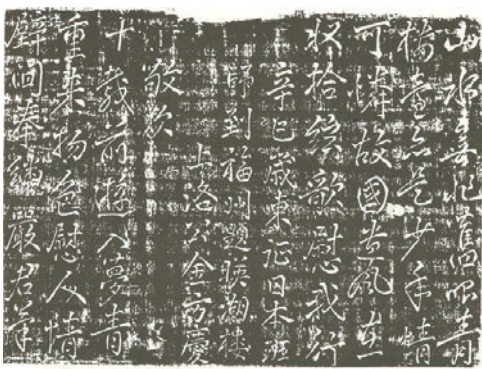
3. 청(淸)자의 오류 청(靑)?

충렬공의 ‘복주(福州)’ 시가 수록된 문헌은 위에서 소개한 3편의 시가 가장 빠르며, 그 다음으로 1478년(성종 9년)에 서거정(徐居正)이 편찬한 《동문선(東文選)》이다. 그런데 이 《동문선》에 푸를 청(靑)자로 기록 하고 있다. 당시《동문선》을 찬집하면서 자료를 수습할 때 淸자를 靑자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후 모든 자료들이 《동문선》을 전거(典據)하여 기록 되어진 문헌들이다. 이행(李荇)과 홍언필(洪彦弼)이 1530년(중종 25년)에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1580년에 발간한 우리 족보인 《경진보(庚辰譜)》도 《동문선(東文選)》에 의해 발간된 기록 들이다. 우리 족보의 <선세시문>은 한편도 빠짐없이 《동문선》에 올라 있다. 따라서 《동문선》으로 인해 이후의 모든 문헌들이 푸를 청(靑)로 굳어지게 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동문선》의 기록 오류는 백문보(白文寶)의 영호루 ‘금방기(金膀記)’에서도 오자와 결락된 글자가 나타나 모두 담암집(淡庵集)을 참고로 하여 수정했다는 기록을 볼 때 《동문선》의 기록도 완벽한 것 만은 아닌 것 같다. 영호루는 오랜 세월속에서 관리 부실과 반복되는 홍수피해로 유실(流失)되고 각종 현판(懸板)도 파란을 겪으면서 자료 수습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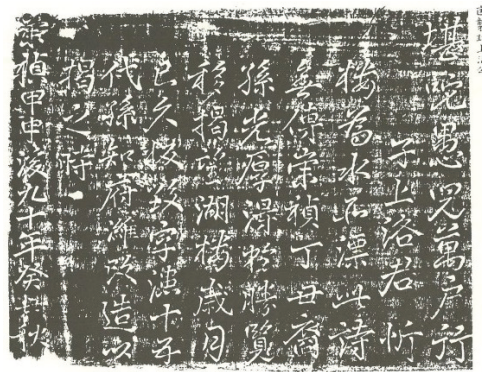
1) 《동문선》에 수록된 우리 선조님 작품들 《동문선(東文選)》은 삼국시대 부터 조선의 중종조(中宗朝) 까지의 시인·문사들의 수 많은 우수한 문헌(文獻) 작품들을 뽑아 편집한 것으로 정(正)·속(續) 두 편이 있다. <정편>은 1478년(성종 9년) 12월에 예문관 대제학 서거정(徐居正) 및 홍문관 대제학 양성지(梁誠之) 등이 명을 받들어 찬집(撰集)한 것인데, 총 권수는 목록 세 권을 합하여 133권으로 되어 있다. <속편>은 1518년(중종 13년)에 찬집청당상(撰集廳堂上) 신용개(申用漑) 등이 정편이 집성(集成)된 이후 40여 년간에 저술된 시문들을 추가 선발 한 것을 합하여 총 23권으로 편찬하였다. 《동문선》에 수록된 작자(作者)들 중에 우리 선조님들과 작품은 고려시대 상서공(尙書公) 김효인(金孝印)-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도첨의공(都僉議公) 김흔(金忻) 3대의 시문(詩文) 3편을 비롯하

여, 문숙공(文肅公) 김영돈(金永暾)의 시문 1편과 문온공(文溫公) 김구용(金九容)-지제교공(知製敎公) 김제안(金齊顔) 형제의 시문 10편이 수록되어 있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참판공(參判公) 김익정(金益精)과 손자 복창군(福昌君) 김수녕(金壽寧)의 시문 9편과 문경공(文敬公) 김수동(金壽童)의 시 2편, 부윤공(府尹公) 김돈(金墩)의 명(銘).서문(序文).기문(記文) 등 6편에 이르기 까지 우리 선조님들의 작품 31편을 볼 수 있다. 동문선은 한문학 전통에 의한 대표적 문학 작품으로서 오랫동안 우리 문학 발전에 커다란 자취를 남긴 역사의 귀중한 문헌들이다.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 자료는 종종 연간의 을해자(乙亥字) 본과 광해군 7년의 훈련도감자(訓練都監字) 본으로 매장마다 10행 19자인데, 고판본을 피하여 취급하기에 편익한 경희출판사 영인본(慶熙出版社影印本)과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 영인본을 사용하고 있다.

2) 안동부사 김유(金維)가 계판한 시판의 탁본



金方慶新羅敬順王之後父 孝印高麗人高宗朝 始仕 征珍島耽羅日本皆有功官 至僉議中贊諡忠烈上洛公 山水無非舊眼靑 樓臺亦是少年情 可憐故國遺風在 收拾絃歌慰我行 辛巳歲東征日本班師到福州題嘆湖樓 - 上洛公 金方慶



金忻方慶子以蔭補刪定都監判官從父征日本有功官 至都僉議司事加三重大匡襲封上洛公 敬次“十載前遊入夢靑 重來物色慰人情 壁間奉繼嚴君筆 堪吃愚兒萬戶行”

樓爲水所漂此詩無傳 崇禎丁丑 裔孫光厚 得於勝覽移揭望湖樓歲月已久板毀字漣十五代孫知府維改造以揭之時崇禎甲申後九十年癸丑秋 홍수로 떠내려간 영호루의 시판이 전해오지 않다가 승정 정축년(1637년)에 예손 광후(光厚)가 발견하여 망호루(望湖樓)에 임시로 옮겨 걸었으나 세월이 오래되고 글자가 훼손되어서 15대손 유(維)가 안동부사로 부임하여 1733년 가을에 고쳐서 보기 좋게 다시 걸었다. ※출처 : 경주김씨 고문서집성(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년)

■ 예손 김광후(金光厚)는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다.

■ 김유(金維) 1685(숙종 11) ~ 1748(영조 24) 자(字) 여즙(汝楫). 충무공 김응하(金應河)의 현손이고 제주목사 세구(世龜)의 손자이며, 금산군수 중우(重禹)의 아들이다. 1710년에 문과 급제하고 청요직을 거쳐 안동부사, 남원부사 등을 역임하고 대사간(大司諫)에 이르렀다. 안동김씨 족보 기미보(1739년)의 서문을 썼다.

- 대중회사무부총장 김태영(金泰榮) -

조선 최초 여성 묘지명 소개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성의 묘지명(墓誌銘)은 극히 드물다. 더구나 남편이 쓴 것은 흔치 않은데, 명종 때의 문신 묵재(默齋) 이문건(李文楗, 1494~1567)이 지은 아내 ‘숙부인 안동김씨 묘지명’은 조선시대 사대부(士大夫)의 여성 묘지명으로는 현재 밝혀진 것 중 최초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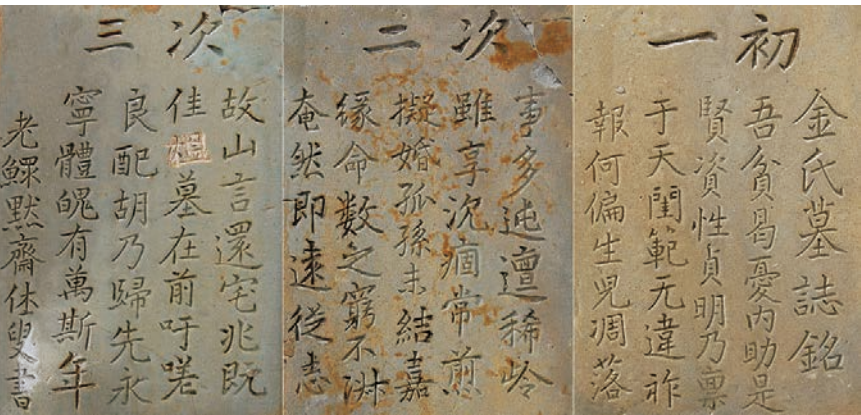
이문건의 아내 숙부인 안동김씨는 이름이 김돈이(金敦伊, 1497~1566)로 제학공(提學公) 익달(益達)의 후손이다. 아버지 김언묵(金彦默)과 어머니 의성김씨(義城金氏)에서 1497년 8월 21일 서울 주자동(鑄字洞)에서 태어나 당시 여성으로 드물게 이름도 갖었다. 1566년 11월 12일 남편의 고향이자 유배지인 성주(星州)에서 70세에 폐질환으로 별세하였다.

장례는 숙부인이 별세한지 약 100일이 지난 1567년 2월 15일 발인하여 16일 경북 고령군 운수면 흑수촌 부동(釜洞)에 이문건의 6대조인 문열공 이조년(李兆年) 묘소 뒤에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남편인 묵재 이문건도 별세하여 숙부인 김씨와 합장하였다.

묵재일기에 보면 1566년 11월 9일 무녀(巫女) 추월(秋月)이 와서 기침병에 대한 굿을 했고, 3일후인 12일에 숙부인이 별세하였다. 다음날 13일 소렴(小殮)을 하고 14일 대렴(大殮)과 성빈(成殯)을 마쳤으며 15일 신시(申時)에 성복제(成服祭)를 지냈다. 그리고 16일에 판관이 제수(祭需)를 보내왔음을 기록하고 있다. 11월 25일 김우갑(金友甲=숙부인의 친정조카)이 와서 곡을 하였다. 그 외에도 3개월간의 장례기간에 인근 목사. 군수 등 지인들이 부의와 물품 등을 보내온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문건은 숙부인 김씨의 묘지명을 찬술하여 백자로 제작해서 장례 때 부장했다. 내용은 初1~3次 까지는 숙부인 안동김씨에 대하여 4자(字) 운(韻) 22구(句)의 명(銘)을 적고, 4次~6次까지는 부인의 친정 가계와 이문건의 가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후반에는 부인의 행장(行狀)과 이어서 자녀들의 탄생과 양육에 관한 내용이고 다음은 장지와 장례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숙부인 안동김씨 묘지명’은 2012년 5월 30일 충북 괴산군 문광면 대명리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백자항아리, 세조대, 철릭 등과 함께 출토된 것이다. 묘지명은 모두 6장의 백자(白磁)에 앞뒷면으로 서술하여 제작되었으며, 규격은 가로 17cm 세로 23.5cm 두께 3.5cm이다.



▲ 淑夫人 安東金氏 墓誌銘 前面 (1初 ~ 3次)

김씨묘지명 金氏墓誌銘

吾貧曷憂 내 어찌 가난함을 걱정하랴
內助是賢 내조가 이처럼 어진데.

資性貞明	아내의 자질과 성정이 곧고 밝으니
乃稟于天	이는 하늘에서 부여 받은 성품이다.
閨範无違	규방의 본을 어기지 않았는데
祚報何偏	복을 받은 것은 왜 이다지도 불공평한가?
生兒凋落	아이를 낳으면 시들어 떨어지고
事多迍邐	일마다 어려움이 많았다.
稀齡雖享	비록 고희(古稀)까지 누렸으나
沉痾常煎	고질병에 빠지고 항상 물이 끓는 듯 했다.
擬婚孤孫	외로운 손자의 혼사를 의논하다가
未結嘉緣	가연(佳緣)을 매듭 짓지 못했다.
命數之窮	명운이 궁벽하여
不淑奄然	누리지 못하고 갑자기 떠났다.
即遠從志	이제 여인의 삼종지도를 멀리하고
故山言還	연고가 깊은 산으로 돌아간다.
宅兆既佳	유택이 이미 아름답고
煢墓在前	온(아들)의 묘가 앞에 있네.
吁嗟良配	오오! 어진 배필이여
胡乃歸先	어찌 먼저 가는가?
永寧體魄	신체와 혼백이 영원히 편안하게
有萬斯年	만년토록 쉬소서!
老鰥 默齋 休叟書	늙은 홀아비 묵재 휴수 쓰다.



▲ 淑夫人 安東金氏 墓誌銘 前面 (4次 ~ 6次)

夫人曾祖金哲鈞乃 讓寧大君嫡女壻也 祖壽亨 光廟元勳 權擘女夫也 外祖金益謙 宜寧 南僦女夫也 弘治甲寅至月癸丑休叟生 玄祖諱稷 開國元勳領議政 高祖諱師厚嘉善漢城府尹 曾祖諱咸寧 集賢校理 祖諱叔生 僉知中樞 考諱允濯 承文權知 妣安人申氏籍高靈 漢城判官 諱澮之女 仲舟之孫 檣之曾孫

숙부인 안동김씨의 증조부는 김철균(金哲鈞)으로 양녕대군(讓寧大君) 사위이고 조부는 수형(壽亨)으로 세조[光廟] 때의 공신 권람(權擘)의 사위이다. 외조부는 김익겸(金益謙)이고 외조모는 의령 남척(南僦)의 따님이다.

1494년(弘治 甲寅) 11월 28일 휴수(休叟=이문건)가 태어났다. 현조(玄祖)의 휘는 직(稷)으로 개국원훈공신 영의정(領議政)이다. 고조의 휘는 사후(師厚)로 가선(嘉善)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지냈고, 증조의 휘는 함녕(咸寧)으로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이며, 조부의 휘는 숙생(叔生)으로 첨지중추(僉知中樞)이고, 아버지의 휘는 윤탁(允濯)이며 승문원 권지(承文院權知)를 지냈다. 어머니 안인(安人) 신씨는 본관이 고령으로 한성판관 회(澮)의 딸이며 중주(仲舟)의 손녀요 장(檣)의 증손녀이다.

[후면]



후면은 부인의 행장(行狀)과 이어서 자녀들의 탄생과 양육에 관한 내용을 적고, 다음은 장지와 장례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 [이장시 출토된 부장품]



▲ 목재 이문건. 숙부인안동김씨 합묘 (괴산군 문광면 대명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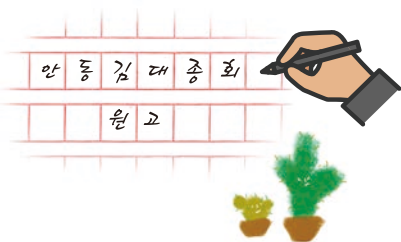


▲ 아들 온(燾) 묘와 손자 원배(元培=守封) 묘

목재(默齋) 이문건(李文健, 1494~1567)은 기묘사화.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23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경사(經史)에 탐닉하고 시문에 힘쓰다 유배지에서 죽었다. 16년간 손자를 키우면서 기록한 육아일기 양아록(養兒錄)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73호로 지정되었다. 이 외에도 한글 영비(靈碑)와 목재일기(默齋日記) 등이 전한다. 괴산의 화암서원(花巖書院)에 제향되었다.

〈대중회사무부총장 김태영(金泰榮)〉

대중회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안동김씨대중회에서는 대중회보(중보)를 년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 파종회와 종친들께서는 종인들의 미담이나 선조님들의 사료 발굴자료,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 자랑하고 싶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싣고자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제출마감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우편, E-mail: andongkimgu@naver.com
- ◎ 자료제출 : 원고와 사진 등
- ◎ 제 출 처 : 대중회사무처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1
- ◎ 연 락 처 : 전화 (02)2244-3717, (02)2244-3710
팩스 (02)2243-1073

회비를 보내주신 종친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5월 26일 ~ 2020년 8월 31일 기준)

◎ 임원회비 (부회장)

· 20만원 : (冀)재영, (安)흥기, (提)태헌, (都)태조

◎ 임원회비 (이사)

· 10만원 : (都)희중, (提)용식, (冀)윤묵, 정희, 인희

◎ 통상회비(일반)

- 5만원 : (郡)태석, (冀)인식, 논산종친회
- 3만원 : (文)병묵, (冀)봉수, 수영
- 2만원 : (郡)호영 (文)사용 (按)태길 (冀)태위 (?)원희

◎ 찬조금

· 10만원 : (冀)동진

◎ 평생회비

· 20만원 : (郡)우직

회비 및 성금 계좌번호 안내

※반드시 소속(派)과 이름을 병기하시어 입금하시고
대중회 02-2244-371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회비(부회장) - 20만원
- 임원회비(이 사) - 10만원
- 평생회비(개 인) - 20만원
- 통상회비(개 인) - 2만원 이상
- 찬 조 금(개인 및 단체) -

국민은행
356201-04-133305
안동김씨대중회

세종문화원, ‘몽골 합단의 침입과 연기대첩’ 토론회 열어



‘2020년 연기대첩 학술세미나’가 18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민회관에서 세종문화원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몽골 합단의 침입과 연기대첩’이라는 주제로 4가지 소주제를 두고 90여분 간 종합토론으로 진행돼 연기대첩의 의미를 되살렸다.

한상운 세종문화원장은 개회사에서 “연기대첩은 우리나라 7대 대첩 중 하나이며 몽고 합단적을 맞아 싸워 승전한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의 정신적 유산”이라면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콘텐츠로서 연기대첩의 활용 및 연기대첩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을 위해 관계전문가와 지역전문가가 함께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개회사에 이은 1부 행사에는 ▲카단(哈丹)의 고려침입 배경(고명수 충

남대학교 교수) ▲연기대첩의 재조명과 계승가치(이해준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기대첩제 발전방향 모색(양광호 한국영상대학교 교수) ▲연기대첩의 콘텐츠화와 교육적 활용(문경호 공주대학교 교수) 등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2부 종합토론은 윤용혁 공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4명의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박희두 세종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김홍식 안동김씨 전서공파회장, 김정기 세종시청 관광문화재과 문화재 학예연구사, 김준기 세종고등학교 교사가 연기대첩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인식 증진과 연기대첩제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우리 안동김씨대종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대종회 차원의 참여는 하지 못하고 축하 화환전달과 세종시가 세거지인 전서공파종회에서 전서공파 종회장 홍식님을 비롯하여 전서공파 참판공계 진희외 2명 참판공계 재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오늘(2020.8.5)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요약해 알려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정 이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함(법 제2조).

나.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법 제4조).

다.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대상에

서 제외함(법 제5조).

라.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마.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11조).

바. 대장소관청은 이 법에 의하여 작성된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의 자료와 기록을 법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0년간 보존하도록 함(법 제13조).

사.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기사제공 법무사 김원중(都, 대종회고문)〉